

무한 경쟁
압박 수비
다공 축구

“광주만의 色으로 신나는 축구 하겠다”

■ 광주 FC 김호영 감독 취임 회견

개인보다 조화...선의의 경쟁 통해 매 경기 베스트11 선발
빠른 공수전환...공격형 수비로 실점 최소화·역동 축구 지향
30년만의 고향 생활 설레...전용구장·포항전 첫 승 '1차 목표'

광주FC의 새 사령탑 김호영 감독이 '역동적인 축구'로 광주만의 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호영 감독은 23일 광주전용구장 1층 인터뷰룸에 기자회견을 하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각오를 언급했다. "광주가 고향인 김호영입니다"라고 입을 연 김 감독은 "고향으로 온다는 기대감과 부담도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기분으로 왔다. 20여 년 동안 지도자로서 경험한 모든 부분을 광주 시민, 선수들과 소통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 감독은 1991년 일화전마를 시작으로 1996년 전북현대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이후 지도자로 U17 청소년대표팀 수석코치, 광주 FC 수석코치, 동국대학교 감독, FC 서울 감독 대행 등으로 활약한 뒤 마침내 고향에 돌아왔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광주를 떠났다. 축구선수로 성장한 곳이다. 고등학교 때 기초를 잘 닦았고 그 때 선수, 지도자로서의 바탕이 됐다"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다. 광주만의 색과 정서, 팬들이 선호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광주의 끈질기고 헌신적인 부분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즐겁고 신나는 광주의 축구 색을 보여드리려는 게 임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독의 방향은 확실하다. 역동성을 바탕으로 1부리그에서 경쟁할 수 있는 탄탄한 팀을 만드는 것이다. 김 감독은 "축구는 역동적이기 때문에 운동장 안에서 역동적인 축구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몰려서 지는 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 그런 플레이로 팬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겠다"며 "특정 선수에 의존하기보다는 전체가 조화를 이루며 빠른 공수전환과 강한 압박 수비를 하겠다. 실점을 안 하는 수비가 아닌 공격을 하기 위한 수비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개인보다는 팀을 언급한 김 감독은 '경쟁'을 통해 광주의 색을 입혀나가겠다는 각오다. 김 감독은 "타 팀에 있을 때 광주를 보면 정말 열심히 한다. 선수들이 존경스러울 정도다. 그런 부분에 세밀함과 기술적인 부분을 더하겠다. 베스트 11은 정해져 있지 않다. 매 경기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무한 경쟁을 해왔다.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중요하다. 젊은 선수들, 베테랑들을 포함한 선의의 경쟁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선수도 발전하고, 팀도 발전한다. 운동장에서 웃으면서 마음껏 자기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축구를 만들고, 그것을 보면서 시민들이 같이 웃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목표도 설정해뒀다. 광주전용구장에서 첫 승, 포항전 첫 승 그리고 '광주 스타일'이



광주FC의 새 사령탑 김호영(오른쪽) 감독이 23일 광주전용구장 라커룸에서 선수들과 상견례를 하고 있다.

김 감독의 목표다.

김 감독은 "전용구장에서 승리가 없다. 개막전에서 첫 승을 선물하면 좋을 것 같다. 또 포항에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꼭 이겨 보겠다"며 "지금 당장 내년 시즌 구체적인 성적을 말하기보다는 1부리그 경쟁력을 가지면서 신나고 재미있는 광주만의 축구 스타일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시민구단의 상황을 고려해 '효율성'과 '윈윈'으로 목표를 이뤄나가겠다는 각오다. 김 감독은 "구단 재정 등 현실적인 부분을 직시

해야 한다. 특정 선수에 집중된 플레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팀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선수를 준비하고 있다. 구단 상황에 맞춰 소통하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예산 안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선수 구성을 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수들이 준비를 잘해야 경기장에서 즐길 수 있다. 훈련이 잘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훈련 전 단계는 마음이다. 선수들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그들의 가치를 최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지도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공교롭게도 광주와 서울이 지도자를 맞바꿔 내

년 시즌을 맞게 되는 만큼 '서울전'은 K리그1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김 감독에게도 기다려지는 승부가 됐다. 김 감독은 "박진섭 감독하고 트레이드했다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웃음)"며 "서울전 기대가 된다. 선수들과 같이 상암에 가서도 즐기고 홈에서도 즐기면서 이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 선수들과 상견례를 한 김 감독은 28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을 지휘하며 고향팀 데뷔전을 준비한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백승호, 시즌 첫 골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독일 프로축구 2부 분데스리가 다름슈타트에서 뛰는 백승호(23)가 독일축구협회(DFB) 포칼에서 마수걸이 득점포를 가동하며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작성했다. 백승호는 23일(한국시간) 독일 드레스덴의 루돌프-히르비크 슈타디온에서 열린 디나모 드레스덴(3부리그)과 2020-2021 DFB 포칼 2라운드 원정에서 1-0으로 앞서던 후반 14분 추가골을 터트렸다. 백승호의 올 시즌 첫 골이다. 다름슈타트는 백승호의 득점에 이어 후반 26분 세르다르 두르순의 썬기골이 이어지며 3-0으로 대승을 거두고 포칼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백승호는 3-4-3 전술의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투입돼 다름슈타트의 공격 과정에 큰 힘을 보탰다. 다름슈타트는 전반 24분 페널티지역에서 시도한 두르순의 왼발슛이 수비수 몸에 맞고 흘러나오자 파비안 슈넬하르트가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강력한 왼발슛으로 드레스덴의 골문을 강하게 흔들었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다름슈타트의 추가골 주인공은 백승호였다. 백승호는 후반 14분 중원에서 전진으로 드리블하며 두르순에게 패스를했고, 두르순은 곧바로 재치는 힐패스로 백승호에게 볼을 되돌려줬다.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패스를 이어받은 백승호는 지체 없이 오른발 슛으로 반대편 골문 구석에 볼을 쏘았다. 이번 시즌 11경기(정규리그 9경기+포탈 2경기) 만에 터진 백승호의 마수걸이 득점포였다. 이날 득점으로 백승호는 이번 시즌 1호골과 함께 16일 정규리그 12라운드 2도움, 19일 13라운드 1도움에 이어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1골 3도움)의 고공비행을 이어갔다. 다름슈타트는 후반 26분 두르순의 썬기골까지 터지면서 3-0 승리로 경기를 마치고 포탈 16강 진출의 기쁨을 맛봤다. 한편, 라이프치히의 공격수 황희찬은 이날 아우크스부르크와 포탈 2라운드 원정 경기에 결장한 가운데 아우크스부르크의 전성훈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라이프치히의 아우크스부르크를 3-0으로 몰리치고 16강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가 23일 스페인 바야돌리드에서 열린 라리가 경기에서 레알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득점 기회를 놓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리메라리가 바야돌리드전 후반 썬기 골...바르샤 3-0 승리 17시즌 644골 단일 클럽 통산 최다 골...펠레보다 2시즌 빨라

'축구 황제' 펠레(80·브라질)의 단일 클럽 최다 골 대기록을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3·아르헨티나)가 깨뜨렸다. 메시는 23일(한국시간) 스페인 바야돌리드의 호세 소리아 경기장에서 열린 2020-2021 시즌 라리가 1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을 도운 데 이어 후반 20분 썬기 골을 책임져 FC바르셀로나의 3-0 승리를 매조했다. 축구 역사를 새로 쓴 골이기도 했다. 데뷔 이래 바르셀로나에서만 뛴 메시는 이 골로 프로 통산 득점을 644골로 늘리며 단일 클럽 통산 최다 골 기록을 썼다. 이전까지는 산투스(브라질)에서 643골을 넣은 펠레가 이 부문 최다 기록 보유자였다. 메시는 펠레보다 빠른 속도로 대기록에 도달

했다. 펠레 역시 산투스 한 클럽에서만 뛰었다. 643골을 넣는 데 19시즌(1956-1974)이 걸렸다. 메시는 2004-2005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17시즌 동안 644골을 넣었다. 아직 서른세 살로 올 시즌 벌써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득점력이 여전한 메시는, 펠레와 격차를 꾸준히 벌려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과거보다 이적이 잦아진 현대 축구에서 메시처럼 최고의 득점력을 가졌으면서 한 팀에서 오랜 기간 뛰는 선수는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펠레를 뛰어넘은 메시의 새 기록은 '불멸'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ESPN에 따르면 메시와 펠레에 이어 게르트 뮐러(565골·바이에른 뮌헨), 페르난두 페이로 테우(544골·스포르팅), 요제프 비찬(534골·슬라비아 프라하)이 이 기록 3-5위에 자리해 있다. 모두 이미 숨겨져나 은퇴한 지 한참 지난 '전설' 들이다. 바르셀로나는 전반 21분 메시의 패스를 받은 클레망랑 말레가 득점한 데 이어 14분 뒤 마르틴 브레이크스웨이트가 추가골을 넣어 2-0으로 앞서나갔다. 메시는 후반 20분 페드리의 힐킥 패스를 수비수 2명 사이로 침투하며 받은 뒤 침착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부진을 딛고 4경기 무패(3승1무)를 달린 바르셀로나는 5위(승점 24)로 순위를 끌어올리며 선두(승점 32)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2위(승점 29) 레알 마드리드 추격에 박차를 가했다. /연합뉴스

리오넬 메시 단일 클럽 통산 최다 골 기록

